

#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교적응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김 나 영

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

##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of upper Elementary Students

Na-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aany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factor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of upper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Methods:**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304 fifth and sixth grade students from October to November, 2014.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statistically through frequency,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WIN 22.0 program. **Results:** First, subjective school record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ool adjustment. Second,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hile bullying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chool adjustment. Third,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were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subjective school record. These variables explained 56.4% of the students' school adjustment. Bullying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chool adjustment, but the correlation disappeared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ere protective factors such as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were controlled for. **Conclusion:** School nurses should develop plans to enhance social support (teacher support, parents support, friends support) as well as programs to improve the ego-resilience of upper elementary students to help them adjust to school and to prevent and manage bullying. Also family, school and the community should be connected cooperatively with each other.

**Key Words:** Adjustment,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Bullying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학교폭력은 갈수록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폭력의 피해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2014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절반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하였으며 피해 학생 중 42.9%는 폭력의 고통으로 인

해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더욱 심각한 점은 자살 생각이 단순한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41.8%는 실제로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77%는 학교폭력 피해 후 가해 학생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피해 학생들의 분노감과 모욕감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1]. 학교폭력의 한 형태 중 집단따

**Corresponding author: Na-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aany University, 1 Haanydae-ro, Gyeongsan 38610, Korea.  
Tel: +82-53-819-1887, Fax: +82-53-819-1885, E-mail: kimny@dhu.ac.kr

Received: Nov 15, 2016 / Revised: Dec 10, 2016 / Accepted: Dec 13,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돌림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한 학생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 행위에 노출되었을 때를 말하며[2], 또래로부터 당하는 집단따돌림은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과 학교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3].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5학년도 학업중단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부적응(학업, 대인관계 등)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한 해 동안 135명으로 나타났다[4]. 이는 최소한의 의무교육 시기도 중단할 만큼 초등학교 시기에 심각한 학교부적응 사례가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부적응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당장이라도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초등학생이 전체 초등학생의 1.3%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 학교 공부가 재미없어서(75.2%), 친구들의 폭력과 따돌림이 싫어서(10.1%), 학교를 다녀도 희망이 없어서(9.8%), 선생님이나 나에게 관심이 없고 무시해서(4.9%) 순으로 분석되었다[5]. 특히 ‘친구들의 폭력과 따돌림이 싫어서’에는 초,중,고 학생 중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응답하여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부적응의 심각성을 시사하였다[5].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2.1%, 중학교 0.5%, 고등학교 0.3%로 초등학교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작년대비 중학교는 0.2%, 고등학교는 0.1% 감소하였으나 초등학교는 오히려 0.1% 증가하였다[6]. 학교폭력 첫 피해 경험 시기로 ‘초등학교 5학년’이 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학교폭력을 입은 학생은 32.4%, 초등학교 고학년 때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47.2%로 초등학교 시기에 피해를 당한 경우는 전체의 79.6%로 대부분 학교폭력에 처음 노출되는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이며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1]. 또한 학교폭력 가해를 경험한 학생도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57.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1].

초등학교 고학년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초기에 이르는 과도기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하게 성숙해지는 시기이며 자기주장이나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어른들로부터의 간섭을 피하고 또래 관계와 친구의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7]. 또한 개인적 또는 기질적 요인과 주변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적응행동을 보이며 학교생활에 대한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8].

학교적응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적, 정의적, 신체적 발달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여러 교육

적 여건을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스스로 학교의 요건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9],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환경적 보호요인들 중 개인적 요인인 자아탄력성과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Rutter [10]는 보호요인이 자아탄력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심각한 위기에 돌부리고 적응적인 기능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Cohen과 Hoberman [11]은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은 괴롭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라고 하였다.

자아탄력성은 내적, 외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고 풍부한 적응능력으로 정의되며[12]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개방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삶은 의미가 있고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13-15]. 이러한 특성들은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16].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주어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7].

그러나 학교적응과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과 자아탄력성 등 학교적응과 각각의 변수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16,18] 학교적응과 집단따돌림,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학교적응과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집단따돌림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보건교사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학교적응 관련요인을 조사함으로써 학교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분석한다.
-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사회적 지지, 집단따돌림,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교적응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대상은 일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4개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5, 6학년 남, 여 학생들을 임의표집하여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상 대상자 수는 다중선형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고려된 독립변수 수 5로 하였을 때 92명으로 제시되어 탈락률을 고려하여 320명을 설문 조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연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는 제외하고 총 304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로 일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4개교의 교장, 교감, 교무부장의 승낙을 받고 연구자가 직접 보건의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 설문지 작성요령과 유의 사항, 연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연구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였고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없으며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윤리적인 고려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자료의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절대 노출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설문조사의 목적 등이 포함된 설명문과 함께 학부모 동의서를 발송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자기보고법으로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작성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였으며 참여 학생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 3.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부분으로 학년, 성별, 경제적 수준, 맞벌이 유무, 주관적 성적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6문항, 학교적응 24문항, 사회적 지지 24문항 집단따돌림 정도 15문항, 자아탄력성 14문항으로 총 83문항이다.

#### 1) 학교적응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 [19]이 개발한 학교 적응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교우관계, 학교 수업, 교사관계 각 8문항의 3개 하위요인별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Lee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Han [17]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의 3개 하위요인별로 각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Han [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 [15]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Park [2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총 5개 하위요인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척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k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88이었다.

#### 4) 집단따돌림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의 피해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hoi와 Chae [21]가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집단따돌림을 소외형, 언어형, 신체형으로 구분하여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없었다. 0점, 가끔 1점,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2점, 일주일에 여러 번은 3점을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경험의 정도가 큼을 나타낸다. 소외형은 은밀하고 은근하게 무리를 지어 한 사람을 소외시키는 유형이고 언어형은 놀림, 조롱, 욕을 하거나 헐뜯는 유형으로 주로 언어로 고통을 주며 따돌리는 유형이며, 신체형은 강제적인 심부름, 신체를 이용한 심한 장난, 강탈, 구타가 위주가 되는 따돌림 유형이다. Choi와 Chae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89였다.

##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는 t-test 또는 ANOVA로 분석을 하였으며, ANOVA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Scheffé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분석하였다. 연속형으로 측정된 외적변인(사회적 지지, 집단 따돌림) 및 내적변인(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간에는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교적응 관련요인은 다중선형회귀분석

(multiple liner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이 53.3%, 여학생이 46.5%였으며 5학년과 6학년의 수는 각각 50%로 같았다.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다'로 응답한 학생이 71.6%, '잘사는 편이다'에 응답한 학생이 25.4%, '가난한 편이다'로 응답한 학생은 3.0%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맞벌이 유무에서 '유'에 대답한 학생은 66.4%, '무'에 대답한 학생은 33.6%였다. 주관적 성적수준은 '중위권'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하위권'이 22.1%, '상위권'이 11.2%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79.9%, '건강하지 않다'가 20.1%로 나타났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주관적 성적수준( $F=22.01, p<.001$ )과 주관적 건강상태( $t=2.46, p=.01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관적 성적수준이 높은 군일수록 학교적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부정적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군의 경우 학교적응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04)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Boy	163 (53.5)
	Girl	141 (46.5)
Grade	5th	152 (50.0)
	6th	152 (50.0)
Economic status	Good	77 (25.4)
	Moderate	218 (71.6)
	Poor	9 (3.0)
Dual-income family	Yes	202 (66.4)
	No	102 (33.6)
Subjective school record	Top	34 (11.2)
	Middle	203 (66.7)
	Bottom	67 (22.1)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243 (79.9)
	Poor	61 (20.1)

**Table 2.** Differences in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Grade	5	3.40±0.71	-1.68	.093
	6	3.53±0.61		
Gender	Boy	3.40±0.71	-1.93	.054
	Girl	3.55±0.60		
Economic status	Good	3.58±0.65	1.59	.206
	Moderate	3.43±0.68		
	Poor	3.42±0.61		
Dual-income family	Yes	3.45±0.62	-0.69	.491
	No	3.51±0.74		
Subjective school record <sup>†</sup>	Top	3.86 <sup>a</sup> ±0.65	22.01	<.001
	Middle	3.41 <sup>b</sup> ±0.61		
	Bottom	3.04 <sup>c</sup> ±0.66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3.51±0.69	2.46	.015
	Poor	3.31±0.52		

<sup>†</sup> Scheffé test: a < b < c.

### 3. 학교적응과 사회적 지지, 집단따돌림,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사회적 지지, 집단따돌림, 자아탄력성과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68, p<.001$ ), 집단따돌림과 학교적응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r=-.26, p<.001$ ).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r=.58, p<.001$ ). 따라서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이 증가할수록 학교적응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집단따돌림이 증가할수록 학교적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4. 학교적응과 관련된 요인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적응에 관련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Table 4와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선형회

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고려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학교적응을 56.4% 설명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관련요인에는 고려된 독립변수들 중 유일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주관적 성적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사회적 지지( $\beta=.486, p<.001$ )이었고 자아탄력성( $\beta=.314, p<.001$ ), 주관적 성적수준(상vs하  $\beta=-.188$ , 상vs중  $\beta=-.161, p<.001$ )의 순이었다. 사회적 지지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주관적 성적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성 충족여부는 Durbin-Watson 통계량 값이 1.93으로 2에 근접하고 있어 독립성이 만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산팽창요인(VIF)은 10 이상, 공차한계(TOL)는 0.1 이하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야 하는데, 본 연구는 VIF값이 최대 1.63, TOL 값이 최하 0.61로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Bullying,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N=304)

Variables	School adjustment	School class	Teacher relationship	Friend relationship
Social support	.68***	.61***	.58***	.63***
Friends support	.56***	.46***	.40***	.67***
Parents support	.49***	.48***	.44***	.39***
Teacher support	.59***	.52***	.58***	.45***
Bullying	-.26***	-.25***	-.12*	-.38***
Isolated	-.27***	-.23***	-.13*	-.41***
Verbal	-.23***	-.24***	-.10	-.31***
Physical	-.14*	-.12*	-.06	-.19**
Ego-resilience	.58***	.50***	.43***	.63***
Peer relationship	.57***	.49***	.41***	.66***
Vitality	.48***	.42***	.32***	.56***
Emotion control	.49***	.44***	.40***	.47***
Curiosity	.41***	.37***	.30***	.43***
Optimism	.47***	.37***	.37***	.53***

\* $p < .05$ ; \*\* $p < .01$ ; \*\*\* $p < .001$ .

**Table 4.** Factor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N=304)

Variables	B	SE	$\beta$	t	p
Social support	.648	.060	.486	10.877	< .001
Bullying	-.053	.064	-.033	-0.830	.407
Ego-resilience	.345	.048	.314	7.136	< .001
Subjective school record: middle	-.229	.064	-.161	-3.577	< .001
Subjective school record: bottom	-.399	.098	-.188	-4.079	< .001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110	.066	.066	1.673	.095

Adj.  $R^2=.564$ ,  $F=66.267$ ,  $p < .001$

Dummy variables (reference group): subjective school record (top),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 논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의 분석 결과 주관적 성적과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Park과 Yoon [22]의 연구에서도 학교성적을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학생들이 학교성적을 상이라고 인식할 때 학교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건강 체력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Huh [23]의 연구에서도 학생 건강 체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았고 학교생활적응도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업성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서열위주의 교사와 부모의 인식 구조를 개선하여 자신의 학습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의 건강한 생활습관과 건강관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건강을 지향하는 분위기 조성 등 초등학교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Park과 Yoon [22]의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특히 교우관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성별에서 여학생 3.55점, 남학생 3.40으로 여학생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Park과 Yoon [22]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대상자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중학생으로 본 연구와 다르며 대상자의 거주 지역도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사회적 지지와 학교 적응은 중간 또는 강한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대상자의 학년이 본 연구와 같은 Lee와 Ryu [16], Gu와 Park [18]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지지, 친구지지, 가족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대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및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집단따돌림과 학교 적응의 상관관계에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Kim [3]과 Sunwoo와 Lee [24]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

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교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에서 집단따돌림이 반드시 관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 자아탄력성과 학교 적응의 상관관계에서 중간 또는 강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 대상자와 학년이 같은 Lee와 Ryu [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본 연구결과와 함께 다수의 연구에서 중간 또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있어 중요한 개인 내적 보호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환경적 보호요인인 사회적 지지, 개인적 변인인 자아탄력성, 일반적 특성인 주관적 성적수준은 학교적응에 대해 56.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과 Yoon [22]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주관적으로 성적이 좋다고 인지할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Kwon과 Chung [25]의 연구에서는 정서문제,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취학 전 사교육 경험,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에 대한 55% 설명력 중 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Hur과 Kim [26]의 연구에서는 부 애착안정성, 모 애착안정성, 사회적 지지 중 사회적 지지가 변인의 설명력 62% 중 54%를 차지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을 설명하는데 있어 강력한 보호요인임을 시사한다.

상관 분석에서 집단따돌림은 학교적응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 분석에서 집단따돌림은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과 같은 보호요인과 함께 있을 때 학교 적응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Kim [3]의 연구에서도 집단따돌림은 상관분석에서는 학교적응에 부적관계가 있었지만 심리적 건강 등 다른 변수와 같이 있을 때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Sunwoo와 Lee [24]의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긍정적인 경우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경우라도 학교적응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집단따돌림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향상으로 학교 적응을 도모할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양육, 상담, 지도하고 교육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을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교사와 부모의 적극적인 증대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와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특히 학생과 교사 간에 관계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친구 간의 관계성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 관계에서 상호간에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서열 중심의 학업성취가 아닌 개인이 흥미를 가지고 노력하여 조금씩 학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에 있어 강력한 내적 보호요인이므로 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아탄력성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자가 보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연구대상자 선정을 일개 시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으며 학교적응의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 집단따돌림, 자아탄력성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성적은 학교적응에 대해 56.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관계 분석에서 집단따돌림은 학교적응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분석에서 집단따돌림은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과 같은 보호요인을 보정하면서 학교 적응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집단따돌림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의 향상 등 보호요인의 강화로 학교 적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해 집단따돌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사지지, 부모지지, 친구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학생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적응과 관련하여 집단따돌림,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집단따돌림과 관련하여 학교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Adolescent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2014 The major results of school violence in a nationwide survey [internet]. Seoul: Author; 2016 [cited 2016 August 13]. Available from: [http://www.jikim.net/bbs/board.php?bo\\_table=jikim\\_sharing3\\_2&wr\\_id=516](http://www.jikim.net/bbs/board.php?bo_table=jikim_sharing3_2&wr_id=516)
2. Olweus D.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1978. p. 1-218.
3. Kim HW.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on relationships among peer rejection, peer victimization, psychological health, school attitudes,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2011;13(2):173-198.
4. Ministry of Education. 2015 The results of present-condition survey on the school dropouts [internet]. Seoul: Author; 2016 [cited 2016 September 29]. Available from: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boardSeq=63780>
5. Lee HY. School maladjustment diagnosis and countermeasures (I). Research Report.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2 December. Report No.: RR 2012-05.
6. Ministry of Education. 2016 The 1st results of school violence the survey [internet]. Seoul: Author; 2016 [cited 2016 August 9]. Available from: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boardSeq=63780>
7. Yoon BN, Y HK, Kwon SY.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a prevention program to avoid bullying focusing on sympath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higher grade.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09;18(4):171-183
8. Song YK, Kim YH, Hwang SS. Effects from the interaction of ego resilience, social supports in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1;20(1):1-19. <https://doi.org/10.5934/kjhe.2011.20.1.001>
9. Kim YR. An analysis on the validation of school learning motivation scale (A) & school-related coping scale (B) and relations between (A) & (B). 2000;17:3-37.
10. Rutter M.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In: Rolf J, Masten AS, Cicchetti D, Nuechterlein KH, Weintraub S, editor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Psychopat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97-119.
11. Cohen S, Hoberman H.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er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

- logy. 1983;13:99-125.  
<https://doi.org/10.1111/j.1559-1816.1983.tb02325>
12. Block JH, Block H.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980;13:39-202.
  13. Hwang ST, Ku HM, Kim JH. The personality traits of ego resilien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1;20(3): 569-581.
  14. Rutter M. Resilience in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lie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ic*. 1985;147:598-611. <https://doi.org/10.1192/bjp.147.6.598>
  15. Block JH,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70(2):349-361.  
<https://doi.org/10.1037//0022-3514.70.2.349>
  16. Lee YJ, Ryu JA. Mediating Effect of Self-Resilience on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based upon Children's Percep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3;14(4):2049-2066.  
<https://doi.org/10.15703/kjc.14.4.201308.2049>
  17. Han MH. A study on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6. p. 1-137.
  18. Gu EJ, Park JH.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affect and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6;23(5):289-312.  
<http://dx.doi.org/10.21509/KJYS.2016.05.23.5.289>
  19. Lee KM. A study of middle-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construc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5;17(2):383-398.
  20. Park EH. The relationships between ego-resiliency, IQ and academic achievement [master's thesis]. Daeje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997. p. 1-52.
  21. Choi ES, Chae JH. A study of psych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Understanding People*. 2000;21:109-137.
  22. Park SH, Yoon CH. The effects of personal and family variable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6th and 9th grade Korean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013;24(3):147-169.
  23. Huh JH, Park YB, Sul JD. The effect of physical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on PAPS and sport confident about participated of sport club youth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5;15(12):555-572.
  24. Sunwoo HJ, Lee HS. A study on the effect of bullying to school adjustment: Moderating effect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4;21(1):149-166.
  25. Kwon HJ, Chung HW. Factors that influence children's school life adjust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2015;10(4):79-96. <http://dx.doi.org/10.16978/ecec.2015.10.4.004>
  26. Hur JK, Kim YS. The effect of security of parental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on school-related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05;10(4):483-495.